

동학농민혁명 127주년 기념 특별공연

6월 5~6일까지 '갑오년 만석씨'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서 진행

동학농민혁명 127주년을 기리는 특별공연 '갑오년 만석씨'가 오는 6월 5일부터 6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펼쳐진다.

상반기 최고 기대작으로 손꼽혀온 소리극 '갑오년 만석씨'(작가 사성구, 연출 주호중)는 정음시와 시립국악단이 공동 기획·제작했다.

이 작품은 동학농민혁명이라는 비장하고도 엄숙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비장미와 비극으로 일관하지 않고, 민중의 해학과 웃음이 함께 담겨있다.

동학농민혁명의 회오리 속에 천민 백성 민석과 녹두장군 전봉준의 가슴 뜨거운 감동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특히, 인간이 하늘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두 주인공의 분투와 우정 어린 브로맨스는 민석이 관군의 추격 속에서 처형당한 전봉준의 시신을 찾아 고향으로 내려오는 장면에서 극대화된다.

웃음과 눈물, 감동과 환희가 아리랑고개처럼 끊임없이 끊이치면서 동학농민혁명의 감동을 증폭시킨다.

공연은 8세 이상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전 좌석 5,000원이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65세 이상 어르신은 50% 할인받을 수 있고, 초중고 학생은 30% 할인된다.

입장권은 티켓링크(1588-7890)를 통해 이달 24일부터 예매할 수 있다.

정음시립국악단장 주호중 연출은 "세계 수달



동학농민혁명 127주년을 기리는 특별공연 '갑오년 만석씨'가 오는 6월 5일부터 6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펼쳐진다.

은 사람의 가슴에 프랑크혁명을 꽃피운 뮤지컬 레미제라블처럼 이 작품이 동학농민혁명의 혁신적 공연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성구 작가는 "동학농민혁명의 불길은 훗날

항일 의병운동과 3.1만세운동,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진 우리 민족의 개벽"이라면서 "갑오년 만석씨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외치는 절절한 함성에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벽골제관광지 전통혼례 재현 공연 진행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벽골제가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고있는 가운데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들간 우리 전통문화의 인식 제고를 위해 벽골제아리랑사업소(소장 김영신)에서 전통혼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벽골제가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고있는 가운데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들간 우리 전통문화의 인식 제고를 위해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 전통혼례 재현공연을 진행했다.

재현공연을 진행했다.

이들간 진행된 이번 행사는 백년해로를 바라보는 부부 한 쌍과 처음 보는 젊은 남녀 둘을 섭외하여 각자 다른 분위기와 재밌는 요소를 보여주었으며, 현장에서 화동 두 명을 깜짝 섭외하여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이렇게 진행된 행사는 벽골제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송출하여 온라인으로 생동감을 전달했다.

우도 농악단의 흥겨운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전안례-교배례-서천지례-서배우례 등 옛날 전통혼례 과정 그대로의 모습을 재현하였으며, 동시에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말로 풀어나가 관광객들이 전통혼례 과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마무리는 종물패의 선두로 가마를 탄 신부가 신랑의 집으로 이동하면서 관광객들과 함께 축하행렬을 이루고 신랑 신부가 축하를 받는 것으로 끝이 났다.

김영신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은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로서 안전하고 마음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늘 방역에 집중하여, 다양한 콘텐츠로 관광객들의 불거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무주서 '공예의 숨결' 느껴요"

최북미술관 특별전 30일까지 무주전통공예 공방 입주 작가 작품 전시

무주최북미술관이 특별전 '공예(工藝)의 숨결'을 마련했다.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전시회는 무주전통공예 공방 입주 작가 7명의 작품들을 전시하는 자리로, ▲보석화공방의 김기철 화백(한국화 명인)의 석채화를 비롯해 ▲진북도예의 김상곤 작가(우수기술수련자), ▲지평도예의 남상수 작가, ▲다현재의 박선을 작가, ▲화강도예의 운숙 작가(도예가, 설치조각가)의 도예작품, 그리고 ▲오산공방 소순수 작가(충북명인), ▲동곡 국악기 허희철 작가(무형문화재 제19호 악기장 이수자)의 국악기 작품 등 30여 점이 전시된다.

김기철 화백은 최북을 비롯한 유관순, 안창호 등 위인들의 모습을 천연 돌가루로 정교하게 표현해 탄성을 유발하고 있으며 김상곤 작가의 '금태진사대안', '진사요변대병' 등은 부드럽게 이어지는 곡선미와 오묘하게 느껴지는 색감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남상수 작가의 '차변', '분청지통', '재유각호' 등은 자연미와 질감을 살린 색감과 형태가 매력적이다. 다양한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박선을 작가의 작품들은 재질을

가능하기 힘든 색채 표현이 신선하다. 운숙 작가의 '그리움', '2월의 나무' 등의 작품에서 보이는 절제미는 보는 이의 상상력을 자극하게 만든다.

소순수 명인의 '교방고', '좌고', '대형장구', 허희철 작가의 '산조야쟁', '거문고', '산조가야금' 등의 국악기들은 그 소리가 공명하리만큼 전통 기법으로 정교하게 제작돼 눈길을 끈다.

무주최북미술관 양정은 학예사는 "무주에 등지를 틀고 작품 활동을 하시는 작가들인 만큼 이번 전시회에 특별한 공을 들였다"며 "자연이 아름다운 무주와 어우러진 공예의 숨결을 느껴보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최북미술관 특별전 '공예(工藝)의 숨결'은 2층 기획전시실에서 무료로 관람(09:00~18:00 / 입장료 17:30까지 / 월요일 휴관)이 가능하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무주군은 전시실 내 수시 소독과 환기를 진행하고 있으며 입장 시 발열 및 마스크 착용 여부 확인, 출입자 명부 작성, 관람 시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군산예술의전당, 15일 국악 선물 세트 공연 열린다

군산예술의전당이 오는 15일 오후 3시 봄바람처럼 신명나는 전북도립국악원의 '국악콘서트 락(樂)'을 대공연장 무대에 올린다.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전라북도립국악원은 지난 1984년부터 38년 동안 전라북도 한국음악의 맥을 이어 가고 있는 명실상부 우리나라 최고의 국악단이다. 전주대사습놀이 등 국내 유수의 경연대회에서 수상경력을 자랑하는 단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30회 이상의 공연을 올리며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힘쓰는 단체다.

'국악콘서트 락(樂)'은 60여 명의 관현악 단원과 KBS 불후의 명곡, 살리는 남자들에 출연 중인 국악인 박애리의 사회와 협연이 진행되며 국악가요를 시작으로 아쟁 협주곡 금당, 해금 협주곡 추상 등을 선보이며 풍성한 우리 선율과 함께 더욱 멋스럽고 웅장한 국악의 매력을 발산 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공연은 전석 무료로 운영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객석제가 적용되며, 기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예술의전당 관계자는 "5월 가정의 달에 맞춰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국악 선물 세트 공연을 마련하여 많은 시민들이 지친 심신을 치유하고자 문화힐링의 기회를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